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와 성과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UIA 세계건축대회 개요

국제건축연맹(Union Internationales des Architectes : UIA)은 1948년 창립되어 전 세계 124개국 130만 건축가(사)를 대표하며 국제연합(UN)에서 인정받은 국제 건축가 단체연합으로, 1948년부터 3년마다 'UIA 세계건축대회'를 열고 있다. 대회 규모와 권위에 있어서 세계적 국제행사로 '건축 올림픽'에 비유되기도 한다. 전 세계 건축인과 관계자들이 모여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와 문화·학술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담론을 모을 수 있는 전 세계인의 건축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

3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UIA 2017 Seoul)'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UIA,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시의 혼(SOUL of CITY)'을 주제로 해외 참가자 5,000명을 포함하여 3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국(도시) 현황

연도	개최국(도시)	연도	개최국(도시)
2017	대한민국(서울)	1978	멕시코(멕시코시티)
2014	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	1975	스페인(마드리드)
2011	일본(도쿄)	1972	불가리아(바르나)
2008	이탈리아(토리노)	196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5	터키(이스탄불)	1967	체코(프라하)
2002	독일(베를린)	1965	프랑스(파리)
1999	중국(베이징)	1963	쿠바(아바나)
1996	스페인(바르셀로나)	1961	영국(런던)
1993	미국(시카고)	1958	러시아(모스크바)
1990	캐나다(몬트리올)	1955	네덜란드(헤이그)
1987	영국(브라이튼)	1953	포르투갈(리스본)
1985	이집트(카이로)	1951	모로코(라바트)
1981	폴란드(바르샤바)	1948	스위스(로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서울은 26번째 도시로, 아시아 도시 중에는 베이징과 도쿄에 이어 세 번째다. 1993년(서울)과 2002년(부산) 두 차례에 걸쳐 대회 유치에 실패한 이후 2011년에 서울시·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자체 및 정부 부처의 지원과 건축·건설 등 관련 분야 대표 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회 유치에 성공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주제 및 방향

이번 대회의 큰 주제는 ‘도시의 혼(SOUL of CITY)’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혼(soul)이라고 한다면, 도시의 성격과 형태를 구성 짓는 근본 요소는 무엇일까? 이번 대회 주제는 도시와 건축의 단순 겉모습이 아닌 내부를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회 개최 장소인 서울(Seoul)과 발음이 비슷하여 UIA 세계건축대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회주제라는 평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소주제(Sub themes)로 ① 문화(Culture) ②미래(Future) ③자연(Nature)에 대해 기조강연, 논문, 전시, 세미나,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문화(역사)’에서는 도시 내 각기 다른 시대의 건물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형성되어 있는지,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통 건축의 생산적 보존, 역사적 유산과 도시 풍경의 조합, 다양한 문화의 융합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주제 ‘미래(기술)’에서는 도시의 효율적 개발, 환경오염, 인구 변화, 정치 및 경제 불균형, 미래 주거문제 등 인간본연의 가치에 위협이 되는 미래 현상들을 어떠한 기술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행복을 위한 기술,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인스턴트 생활

과 개방형 도시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지속가능)’이라는 주제 아래 도시 내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공원과 수변공간 같은 자연공간의 계획, 자연 생태계에서 도시와 건축이 순응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 자연경관의 문명,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의 웰빙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 및 전시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는 건축계 유명인사의 강연, 각 개인의 연구논문 발표, 글로벌 전시, 학생 및 젊은 건축인 플랫폼, 골드메달 시상식, 건축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열렸다. 또한 대중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대중 강연, 어린이 건축한마당, 국제 공모전, 국제 여름 스튜디오, 서포터스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 기조강연(Keynote Speech)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가, 정치인, 연구자 등 저명인사 10인의 초청연설이 건축대회 기간 중 이어졌다. 특히 UIA에 참여하는 모든 저명인사와 참가자 대부

기조강연 일정 및 강연자

9월 4일(월)	9월 5일(화)	9월 6일(수)	9월 7일(목)
박원순 서울시장	데이비드 레더배로 (LEATHERBARROW, David)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	모사 아부 (ABOU, Moussa) 아프리카 건축연구소 연구원	이토 도요 (ITO, Toyo) 일본 건축가
빌리 치엔, 토드 윌리엄스 (TSIEN, Billie & WILLIAMS, Tod) TWBTA 공동설립자,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PERRAULT, Dominique) 프랑스 건축가	-	-
패트릭 슈마허 (대중강연) (SCHUMACHER, Patrik) 자하하디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민석(대중강연) 대한민국 건축가	깁관 왓타나와랑곤 (WATTANAVRANGKUL, Kobkam)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

포럼 세부일정 및 주제

일자 및 소주제	포럼 주제	발제자 및 세부주제
9월 4일 미래	도심의 삶 (Living in the Inner City)	크리스티아네 무니즈(MUNIZ, Cristiane) 브라질 건축가 상파울루의 교훈 : 지속과 저항(LEARNING FROM SAO PAULO: ENDURING AND RESISTANCE) 윌프리드 왕(WANG, Wilfried) 독일 건축가 성장의 구상(ENVISIONING GROWTH: BERLIN, FROM MODEL TO LABORATORY) 존 페포니스(PEPONIS, John) 조지아공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열린 도시(THE OPEN CITY) 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의 재조명과 재구성(SEOUL RE-VISIONED)
9월 5일 문화	역사가 있는 디자인 (Design with History)	리 시아오둥(Li, Xiaodong) 칭화대학교 교수 반사적인 지역 건축을 향하여(TOWARDS A REFLEXIVE REGIONAL ARCHITECTURE) 승효상 대한민국 건축가 지문(LANDSCRIPT) 쿠마 켄고(KUMA, Kengo) 일본 건축가 장소의 기억(MEMORY OF PLACES) 전봉희 서울대학교 교수 지역주의의 수단, 문화적 유전자(CULTURAL MEMES AS MEANS OF REGIONALISM)
9월 6일 자연	인도적인 녹색건축 (Humane Green Architecture)	토르센 세틸 트레다(THORSEN, Kjetil Traedal) 노르웨이 건축가 타이포로지가 아닌 태도에 관해서(AN ATTITUDE, NOT A TYPOLOGY) 토마스 테라야마(TERAYAMA, Thomas) 일본 건축가 자연환경과 건축문화에 대한 재조명(CULTIVATING CULTURE FROM NATURE: INTEGRATED PLANNING AND DESIGN CONCEPTS FOR ACADEMIC ENVIRONMENT) 위니 마스(MAAS, Winy) MVRDV 공동설립자 다가올 미래(WHAT'S NEXT) 정영균 희림건축 대표 자연환경에서 잉태된 건축문화에의 공감(CONNECTING CULTURE AND NATURE)

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도시 서울, 도시공간의 민주화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 도시가 가진 건축적·역사적 우수성과 함께 도시 내 해결해야 하는 여러 이슈와 과제를 제안하며, 서울이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포럼(Keynote Forum)

포럼은 이번 대회 소주제인 미래·문화·자연에 대해 3일간 주제별로 저명한 건축가·학계교수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한 여러 국내 건축 관련 유관기관인 LH, SH, 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자원공사, 동남아주거연구단, 건축도시공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회식(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하)



다양한 세미나 주제에 따라
자유 참석



'Public Building as a
Catalyst for a Change'
세션에서 발제하는
히로시 호로바 교수



세미나가 개최되는
회의장 내의 모습

세미나(Special Session) 주제

IT와 건축

- 건축에서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in Architecture)
- Smart Move & Work
- 디지털 설계와 구성(Digital Design & Fabrication)
- 새로운 도시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Smart City as a New Urban Platform)
- 운동 표면 디자인(Kinetic Surface Design)

한국의 주거 및 도시개발

- LH, 미래 세계로 뻗어간다(LH, Spread to the future of the world)
- 과거, 현재, 미래의 서울의 주택 문화(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eoul's residential culture)
- 한국 전통 건축 : 유산과 도전(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Legacy and Challenges)

건축과 도시의 최근 이슈

- Southeast Asian Houses : Expanding Tradition
- Southeast Asian Houses : Embracing Urban Context
- 미래의 워터 센시티브 도시 디자인(Water Sensitive Urban Design for Future)
-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as a Catalyst for a Change)
- Eunoia- Lecture from LG Hausys com
- Future of facade and energy saving using vacuum glass

오픈빌딩

- Open Building Strategy
- Open Building Implementation
- Open Building Heritage

연구소 등 공기업, 학 협회, 연구기관,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하여 많은 건축가들이 각 주제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①IT와 건축(IT & Architecture) ②한국의 주거 및 도시개발(Korean Housing Architecture Urban Development) ③건축과 도시의 최근 이슈(Current Issues of Architecture and City) ④오픈빌딩(Open Building) 등 모두 4개 카테고리 18개 세부주제에 대해 발제가 이어졌다. 초청된 전문가만 해도 77명이며, 각 세미나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여 명부터 많게는 200명까지 2,000여 명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시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전시 프로그램이다. 대회 주최 측인 FIKA,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같은 공공기관 전시를 비롯하여 건축사사무소 산업전(red zone), 중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 UIA 국가관(yellow zone), 학생 및 젊은 건축가전 등 각종 전시 및 이벤트(blue zone)가 펼쳐졌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본 행사는 예사 모하메드 UIA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개회식 첫날 오전에 등록한 인원이 9,000명을 넘



코엑스 전시홀 배치도



각자의 주제와 콘셉트에 맞게 준비된 공공기관, 기업체의 전시 프로그램

었고, 최종적으로 1만 677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6년 전 도쿄 대회에서 등록한 건축인 5,0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였다.

1993년부터 많은 건축계 인사들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대회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행사 준비까지 조직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내 건축인과 유관 기관 및 정부가 힘을 합쳐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었다.

전 세계 건축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술1·2 위원회, 학생 및 젊은 건축인 위원회, 전시·운영·재정·홍보·대외협력·행사 등 8개의 세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로 수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부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를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지, 답사지는 어디가 좋을지, 강연회에 초대할 유명인사는 누구로 할지 등 큰 이벤트부터 소소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운영기획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건축인의 단결·단합의 모습과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건축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리플릿 자료
- 유정아(2017),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성공적 폐막", 건축사뉴스, 9월 18일자.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
- UIA 2017 서울 공식 홈페이지, <http://www.uia2017seoul.org>